



<13>곡성 옥과~장흥 회진 수군재건로



1597년 8월 3일(음력), 도원수 권을 밑에서 백의종군(白衣從軍)하던 이순신은 다시 전라좌수사 겸 삼도 수군통제사로 재임명된다. 조선 수군이 경남 거제도 앞 칠천량 해전에서 궤멸한 지 보름여 만의 일이다.

선조는 "생각하건대 그대는 일찍이 수사책임 맡던 그날 이름이 났고, 또 임진년 승침이 있을 뒤부터 업적을 크게 떨쳐 군사들이 만리장성처럼 든든히 믿었는데, 지난번 그대의 직함을 갖고 그대로 하여금 백의종군하도록 했던 것은 역시 사람의 모욕이 어질지 못함에서 생긴 일이었거니와 오늘 이와 같이 패전의욕을 당하게 되니 무슨 할말이 있으리오, 무슨 할말이 있으리오..."라는 내용의 교지를 내렸다.

이순신 장군은 재임명 후 곧바로 군관 10여 명과 함께 길을 떠난다. 그러나 함선도 없고 군사도 없는 맨손의 장군일 뿐이었다. 장군의 수군재건 대장정은 경남 진주에서 시작해 구례~압록~곡성~옥과~석곡~순천~부유창~순천~낙안~별교~보성~조양창~보성을 거쳐 장흥 회령포(회진)로 이어진다. 이를 통해 장군은 마지막 남은 수군 전선 12척을 인수하고 군사를 모아, 한 달 후 진도 울돌목에서 마침내 일본 수군과 일전을 벌여 극적으로 전세를 역전시키는 신화를 창조한다.

<전선도, 군사도 없는 장군=총무공의 대장정 코스를 따라 떠난 날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여파로 '방사능 비'가 내린 이틀날이었다. '섬진강 길'과 겹치는 구례~압록~곡성 구간을 건너뛰고 옥과에서 출발했다. 이순신장군 일행은 옥과에서 석곡으로 가는 도중 전라병사의 패잔병들을 만나 군마와 활, 화살 등을 얻는다. 하지만 400여년이 지난 지금은 곡성, 옥과, 석곡을 거치는 동안 흔적을 찾기 힘들다. 희미하게나마 옥과에서 35km 떨어진 순천시 주암면 장춘리에서 임진왜란 당시 자취를 찾을 수 있었다.

이 마을은 국가의 양곡을 보관하던 '부유창'(富有倉)이 있던 곳으로, 장군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불타버린 후였다. 현재 '부유창'터는 발로 경작되고 있었다. 주민 박재식(80)씨와 이영주(65)씨는 "일제강점기에 국도가 놓이기 전까지만 해도 석곡에서 순천으로 가려면 마을 앞길로 지나다녔다"고 말했다. 장군은 부유창 말고도 보성군 조성면 우천리 고내마을 '조양창'(昭陽倉)도 찾는다.

맨손 총무공, 군사·무기·군량 모은 호국길



장흥 회진면과 노력도를 잇는 회진대교에서 바라본 노력리 앞바다. 멀리 금당도가 보인다. 400여년전 이순신장군은 남도를 돌며 군사와 군량을 모아 불과 12척의 전선으로 일본수군의 수륙병진 작전을 와해시킨다.

정부양곡 보관 터 말고는 400년전 흔적 사라져 임란 유적 연계 스토리텔링화 체험길 조성 기대

다행히 이곳은 봉인된 채 양곡이 무사해 많은 군량을 확보할 수 있었다. 동네 뒤편 아트막한 동산 꼭대기에 자리한 이곳 역시 묘 2기가 있을 뿐 아무런 흔적도 없었다.

김동균(68) 마을이장은 "조양창터는 어린 시절 놀이터였다. 수년 전까지 '조양상 축제'를 하며 첫날 이곳에서 제를 지내기도 했다. 새마을운동 당시 성 북문 흔적 등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낙안을 거쳐 보성에 이르는 동안 관리와 군사, 궁장(弓匠)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장군 일행은 120여 명으로 늘어났다고 '난중일기'에 기록돼 있다.

<신에게는 아직 전선 12척이=보성을 지난 무렵 장군은 선조로부터 "수군의 전력이 너무 약하니 권율의 육군과 합류해 전쟁에 임하라"는 교지를 받았다. 이에 대해 장군은 "신에게는 아직 전선 12척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으로 죽을 힘을 다해 싸운다면 오히려 적을 이길 수 있습니다"라는 장계(狀啓)를 올렸다.

장군은 전선(戰船)이 있는 곳으로 곧장 가지않

고 먼길을 돌아가는 대장정을 하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지용희 서강대 경영대 교수는 '경제전쟁 시대 이순신을 만나다'라는 책을 통해 장군의 대장정 숨은 뜻을 5가지로 요약했다.

우선 장군은 민심을 수습했다. 또 군사를 모았으며, 행정력을 복원했고, 엄격한 군기를 세웠으며, 무기를 모았다는 것. 철저한 정보수집 덕분에 왜군의 이동상황을 먼저 파악, 적보다 한발 앞서 군량과 무기를 수습할 수 있었다고 한다.

마침내 장군은 칠천량 해전에서 패한 지 한 달, 통제사에 재임명돼 대장정에 나선지 보름만인 8월 19일(음력) 장흥 회령포(회진)에서 전선 12척을 인수한다. 경상우수사 배설이 칠천량 전투초기 전장에서 도망하는 바람에 역설적으로 살아남은 전선들이었다.

회진읍에 들어서게 되면 오른쪽 산에 쌓여진 성벽이 시선을 잡아끈다. 최근 복원된 '회령진성'(도 문화재자료 144호)이다. 포구를 내려다보는 높은 위치에 조성돼 있어 마을과 바다가 한눈에 시원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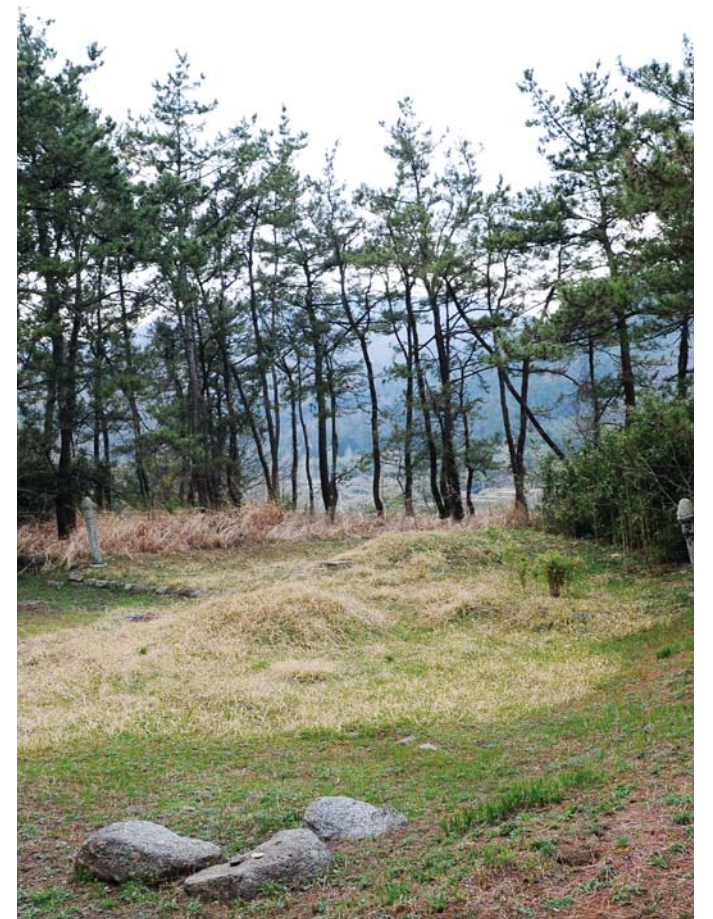
레 보였다. 회령포에서 배를 인수한 장군은 해남 이진(梨津)→해남 어란포→진도 벽파진으로 진영을 옮긴후 9월 16일(음력) 해남~진도사이 '울돌목'에서 서해로 진출하려던 일본 수군을 격파한다.

<대장정 '스토리텔링'화 기대=장군의 대장정은 경남 진주에서 시작해 장흥 회진항에서 끝난다. 서울 옥에서 풀려나 권을 대원수의 진영까지 갔던 '백의종군로'는 전남과 경남도에서 걷기 길로 조성하고 있지만, 수군재건을 위한 전남지역 행로(行路)는 아직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길은 워낙 긴데다 갖가지 없는 곳이 많아 걷기에는 무리이고, 차량을 이용한다 해도 만만치 않은 거리이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의 대장정과 순천 왜성(倭城) 등 남해안에 군데군데 흩어져 있는 임진왜란 유적들을 연결해 '스토리텔링'화한다면 색다른 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윤수옥(74) 전 장흥문화원장은 "회령진은 고흥·녹도, 강진 마량과 함께 만호(萬戶·종 4품 무관)가 주둔하던 곳"이라며 "회령진에 도착했을때 군사 가 얼마나 됐는지 '난중일기'에 기록은 없지만, 남도를 돌며 군사와 무기, 12척의 전선을 수습해 불과 한달후 '울돌목'에서 대승을 거두는 말바탕이 됐다"고 평가했다.

/글·사진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보성군 조성면 우천리 고내마을에 있었던 조양창터.

원적외선 방사 웰빙기 출시

웰빙기 1대 설치로 1석 3조 효과(효도상품)

몸과 마음으로 느끼는 웰빙

- 조명 및 전자제품에서 방사된 원적외선은 친환경과 인체 신진대사 및 경락 순환에 탁월함.
- 학생 공부방 스탠드 조명기구에서 원적외선 방사
 - 조도 3~4%이상, 실내공기 정화
 - 몸의 컨디션 향상
 - 공부 집중력 향상
- 전기메트르에 원적외선 방사로 전자파 중화 및 치료효과 탁월
- 병원 물리 치료실과 사우나실의 원적외선 기기 활용
 - 온열요법 중 가장 강한 열작용으로 어깨 빠긴함과 근육 피로해소
 - 혈액순환을 좋게 하며 영양공급 균형유지
 - 인체 적정 수분 유지
 - 노폐물, 독소 배출 촉진 및 냄새 중화
 - 광택있는 젊은 피부재생효과(피부부속 불순물, 화장품 찌꺼기 배출)

친환경 체험 웰빙

- 김치, 육류 아재, 과일등 맛과 신선도 향상(특히 김치 맛 최고)
- 전자파, 정전기, 수백파는 화회전파, 원적외선은 우회전파로 중화 작용
- 냉장고 보관 식품에서 나는 냄새억제
- 조명기기, 냉장고, 냉난방기, 컴퓨터 등 성능 및 수명 2배 이상 연장
- 어항(수족관) 속 이끼 방지, 물이 깨끗해지고 썩지 않음, 물속에 용존산소 농도가 높아짐
- TV, 컴퓨터 화질 선명도 향상

특제제품(제10-0994817호)

- ISO 9001 : 2000 인증획득

전류개선으로 화재예방 및 전기요금 절감

- 전기 저항 때문에 손실된 에너지를 유효에너지로 환원(최소 5%이상) 저탄소 녹색 성장, 온실가스 감축(전기절 고효율)
- 설치 전과 후가 동일조건 일 경우 전기요금 7~20%절감(누진율)

제품설명

- 웰빙기는 세라믹물질에 의한 원적외선 회전전자파가 생성되어 전선내에 흡수, 전류를 타고 흐르며 전동 및 가전제품에서 방사됨.
- 웰빙기는 순수화학제품이며 무전류기기로 타기기 및 설비에 해를 주지않고 제품수명은 10년이상, 유지보수 및 설치가 간편함.

사례: 광주지역 금호고등학교, 문성고등학교, 조대부속고등학교 인성고등학교 기숙사 설치

제품용량 및 가격

- 가정용, 영업용, 아파트용, 학교용
- 가정용 5KVA 214,000원, 7KVA 300,000원, 10KVA 429,000원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 4동 926-3(2층)
 직통 070-4111-6661 팩스 062-362-6661
 H. P 010-8772-0094

KESECO ULTRA KESECO

www.kesecoco.com

대리점 모집중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녀가발

가발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초슬림!!

스킬과 맘이 초극대화하여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며 이질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귀하의 품위와 인격을 높여주는 영원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가격 파괴 50만원

최상품을 최저가로 최고의 만족을 드립니다.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 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상가 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 장 이 수 채 011-607-5330

대산프리모가발